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풍토병 치료제 산이화 부탁

목련꽃봉우리

추사와 백파의 선리논쟁은 이미 백파가 한양 근교 학림암에 거처하던 때부터 시작된 일이다. 이후 백파는 자신의 주장을 자주 추사에게 보냈지만 추사는 그의 주장을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듯하다.

초의에게 보낸 추사의 편지에는 백파의 천식(淺識)과 선리의 오처(誤處)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자주 눈에 띈다. "백파노인의 글이 한양으로부터 연이어 온 것이 수천만언인데 이 내용들은 전에 말하던 것을 다시 말한 것"라 한 것은 바로 추사의 이런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완당전집〉〉 〈여초의〉 22신과 〈〈벽해타운첩〉〉에 수록된 이 편지는 실제 언제 보낸 것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추사가 "소치도 여기에서 떠나니 대략 적는다"라고 한 것이나 "또 봄이 반쯤 접어들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는 소치가 1844년 봄, 제주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초의에게 전해 준 편지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벽해타운첩

백파의 천식과 선리의 오처 비판
연이은 백파의 편지 초의에게 전해
상서로운 풀, 명(蓂)은 지금의 달력

앞서 부친 편지를 이 편지와 함께 차례로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 또 봄이 반쯤 접어들었습니다. 나그네에게는 세월이 일부러 빨리 가는 것인가. 산가의 세월도 세상을 따라 이와 같이 변하는 것인가요. 스님의 형편은 길하고 편안한지 늘 염려됩니다. 나는 괴로운 상황이 전과 같습니다만 집에서 부리는 하인이 와서 둘째와 막내의 안부 편지와 또 스님의 편지를 받고 크게 위안이 되었는데, 해가 지나도 간절히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백파노인의 글이 한양으로부터 연이어 온 것이 수천만언인데 이 내용들은 전에 말하던 것을 다시 말한 것입니다. 스님이 곁에 있어서 함께 증험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새 달력을 부치니 두고 보심이 어떨지요. 소치도 여기에서 떠나니 대략 적습니다. 이만. 산이화(辛夷花)를 올 여름에도 많이 거두어 말렸다가 보내주면 어떻겠습니까. (前付一緘 未知與此鱗次照 到?又春中 客子光陰故自流?歟 山家日月亦與世推遷如此歟 更唯禪況吉晏念念 賤狀一味前苦只是家?之來 獲見仲季安報 又得師信大慰 年後企切 白坡老人書自京來連章累牘數千百言 此復申前說 恨不使師在傍同證也 新蓂付去留存如何 許痴又此去略?不宣 辛夷花今夏亦爲收乾以惠如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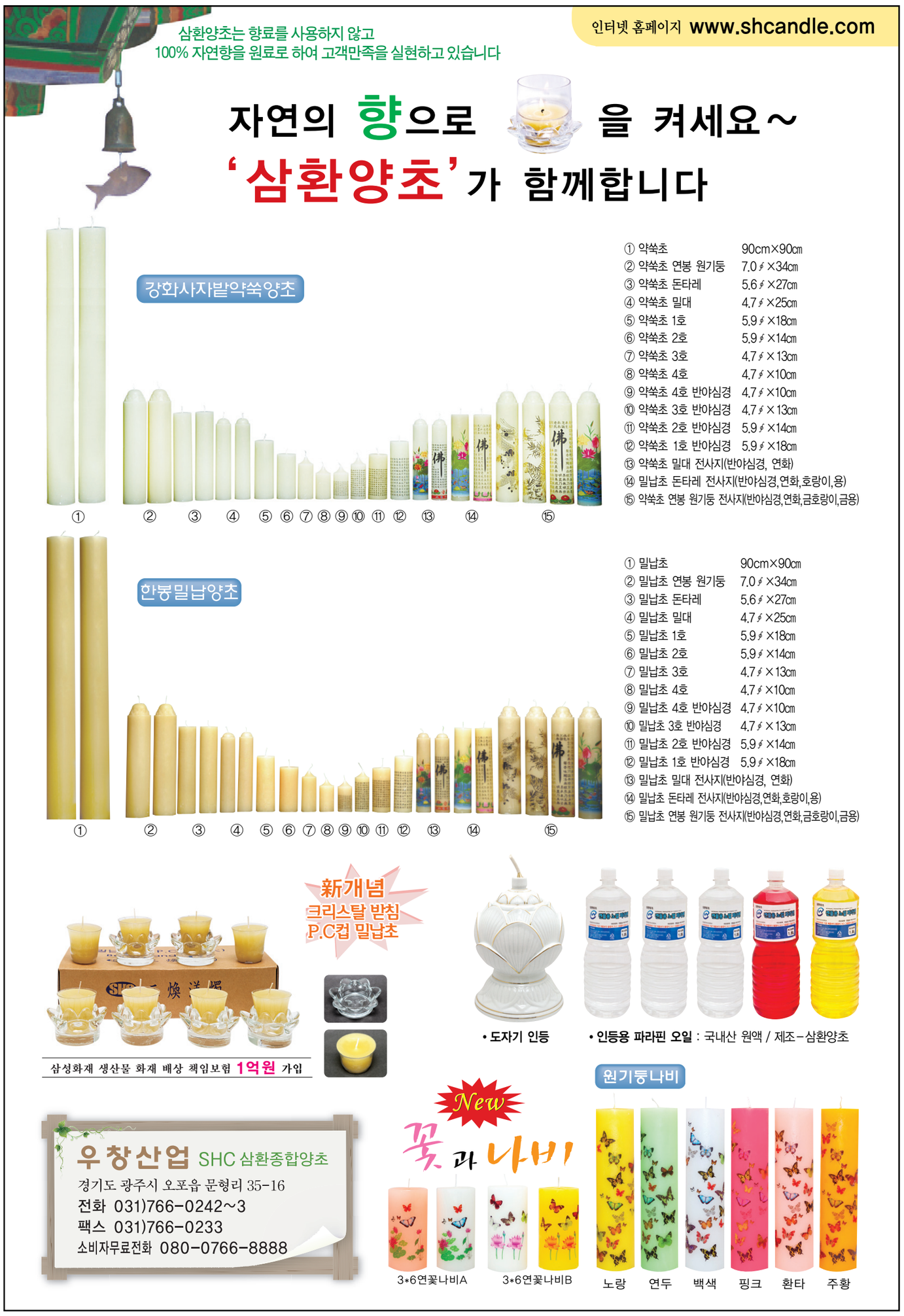
대둔사와 제주를 오가며 두 스승의 가교가 되었던 소치, 그는 스승이 유배된 다음해 1841년 2월, 대정리를 찾아가 스승 곁에서 탁마(琢磨)에 열중하다가 이 해 6월 중부(仲父)의 부음을 받고 제주도를 떠난다.

생활 형편이 어려웠던 소치의 사정을 안쓰러워했던 추사는 자신과 교유했던 제주목사 이용현(李容鉉)에게 소치를 소개, 그의 막하(幕下)에 머물게 한다. 이는 소치가 1843년 7월, 다시 제주로 오게 된 연유이다.

특히 추사는 제주에서 풍기와 화기로 입과 코가 헤지는 고통을 겪었는데, 이를 산이화로 다스렸던가보다. 산이화는 바로 목련꽃 봉우리이다. 그 모양이 붓처럼 생겼다하여 '목필(木筆)'이라 부른다. 성질이 따뜻하고, 매운 맛을 지닌 산이화는 코 막힘을 풀어주는 약재인데, 초의에게 이 약재를 부탁한 것. 이는 그가 풍토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와중에서도 그를 위로한 것은 혈육과 초의가 보낸 편지였다. "집에서 부리는 하인이 와서 둘째와 막내의 안부 편지와 또 스님의 편지를 받고 크게 위안이 되었다"고 한 것은 분명 세월이 흘러도 이들의 편지를 기다리는 추사의 모습이 한 눈에 그려진다. 초하룻날부터 매일 한 잎씩 나서 자라다가 열 엿새째 날부터 매일 한 잎 씩 떨어져 그믐에 이른다는 상서로운 풀, 명(蓂)은 지금의 달력이었던 셈. 요임금 때에 발견 되었다. 이후 신명(新蓂), 혹은 명(蓂)은 달력을 상징한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색향미' 좋은 차 앞에서 햇빛 땀 잊어요 (무착바라밀)

선혜 스님 (석정원 원장)

"차를 따는 시기는 때를 잘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너무 빠르면 향기가 온전하지 못하고 늦으면 신비함이 흩어진다. 곡우 5일 전이 가장 좋으며, 〈중략〉 밤새도록 구름 한 점 없고 이슬이 내리지 않을 때 딴 것이 가장 좋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딴 것이 그 다음이며, 〈후략〉" 초의 선사의 〈다신전〉 중 일부다. 이후 선사의 다법을 따르는 이가 셀 수 없이 많았다. 선혜 스님도 선사의 다법을 따랐다. 스님이 차를 공부한 지 20여 년, 스님은 어느 날 또 다른 눈을 뜬다.

스님은 열아홉 살에 출가한다. 열아홉의 청년에게 세상으로 나가는 길은 많고 많았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길 중에 열아홉 살의 청년이 택한 길은 출가였다. 왜 그 많고 많은 길 중에서 하필 출가였을까. 아버지의 책장에 꽂힌 〈육조단경〉이 그 길을 만들었다. 청년은 부친(소공거사)이 평소 즐겨 읽는 〈육조단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청년의 가슴 속에선 '육조(혜능)'라는 싹이 트기 시작했다. 육조의 생각이 좋았고 육조의 법이 좋았다. 육조가 되고 싶었다. 어린 마음에 한 석 달만 따라하면 육조가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1970년 해인사로 간다. 그리고 머리를 깎는다.

"차 잘 달이는 행자가 들어왔다며?" 스님은 행자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노스님들의 차를 달였다. 행자의 신분으로는 드문 일이었지만 스님은 소문 덕에 노스님들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었다. 소문은 이유 있는 소문이었다. 스님은 출가하기 전부터 차와 가까웠다. 역시 부친의 영향이었다. 스님은 어려서부터 부친이 우려 준 차를 마시면서 자랐다. 다도(茶道)를 본 것이다. 절집에서 차는 '언어'이고 '방편'이다. 시간과 공간을 채우는 언어이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이다. '차나 한 잔 드시오(喫茶去)'는 조주 스님의 공안이고, '선다일미(禪茶一味)'로 대표대는 선차(禪茶) 문화는 불가에서 차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무튼 차는 절집 대중에게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닌, 하나의 깊은 '세계'인 것이다. 스님은 비록 행자였지만 깊은 세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스님은 사미계를 받고 일타 스님을 시봉하게 되는데, 일타 스님은 당시 누구보다 다도에 깊은 스님이었다. 승가에선 이미 정평이 나있었다. 선혜 스님은 그토록 다도에 정통한 일타 스님을 모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 차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사문으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사문의 길이란 무엇일까 생각한다. 그리고 사중의 한 노스님에게 여쭈었다. "스님! 중노릇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스님은 번뇌하는 신참에게 한 수 일러준다. "노는 시간을 잘 놀아야 중노릇 잘 할 수 있다." 무슨 뜻일까. 선혜 스님은 노스님 말씀의 행간에서 쉽게 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노스님의 말씀을 정리했다. 비는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알차게 보내라는 뜻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택한 것이 '차'였다. '차'가 스님을 따라다닌 것일까. 스님이 차를 따라다닌 것일까. 스님과 차는 그렇게 서로 떨어지지 않았고, 그로인해 스님은 '차 하는 스님'으로 각인되었다. 그러다보니 차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조건 스님이 맡아 하게 되었다. 당시 해인사 대학생수련회 프로그램에 다도를 처음 개설하게 되었는데, 그것 역시 스님이 맡게 되었다. 스님이 차에 대해 본격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비록 짧은 기간의 수련회 프로그램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스님은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에 스님은 '독서신문'에서 효당 스님이 연재하는 '한국의 다도'를 보게 된다. 스님은 효당 스님의 글이란 글은 모두 찾아 읽기 시작했다. 스님은 그때 차에 관한 많은 문헌들을 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1973년 가을, 앞을 내다 보고 茶문화를 중흥시킨 효당 스님을 뵙기 위해 다솔사를 찾는다. 효당 스님이 물었다. "차 공부는 어찌 했느냐?" 선혜 스님은 그동안 자신이 배우고 익힌 차에 대해 말하고 효당 스님 앞에서 차를 우렸다. "그것도 다도냐?" 효당 스님은 꾸짖듯 말씀하셨다. 선혜 스님은 당황했다. 그리고 말했다. "애기 똥은 똥이 아닙니까?" 효당 스님은 어이없이 웃으시며 선혜 스님을 제자로 받았다. 스님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차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다. 〈동다송〉, 〈다신전〉, 〈다경〉 등 다도의 고전이란 고전은 모두 이때 보게 된다. 스님은 그동안 했던 자신의 다도가 너무나 초라한 것임을 깨닫고 공부에 매진했다.

1980년 차회 석정원 개설… 2천여명 수료

스님은 강원을 마치고 선원에 들어가 본격적인 수행을 시작했다. 선방 시절, 스님의 단골 소임은 역시 다각(茶角)이었다. 80년대 초, 선방 시절을 보낸 스님은 서울로 올라온다. 봉은사에서 역경원 연수생 생활을 시작한다. 서울에 올라와서도 스님은 차를 놓지 않았다. 스님은 1980년 다회 '석정원(昔鼎園)'을 개설한다. 선혜 스님이 차 문화를 대중을 향해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것은 이 때부터다. 차에 관심이 있는 불자들과 함께 차의 이론적 정립을 시도했으며, 1987년에는 인사동으로 자리를 옮겨 석정원과 함께 불교전통문화원도 개설한다. 석정원의 다도 과정을 모두 이수하려면 10년의 세월이 걸린다. 스님은 "10년은 공부해야 차 공부 했다고 할 수 있죠."라고 했다. 그동안 석정원을 거쳐 간 학생은 2000여 명에 이르고, 10년 과정을 모두 이수한 수강생은 약30명에 이른다. 그 중 국내외 대학에서 차 관련 박사나 학위를 취득한 이들도 40여 명에 이른다.

茶는 절집대중에게 깊은 세계
차문화 중흥시킨 효당 문하서 수학
"노스님, 중노릇 잘하려면…?"
"잘 놀아라", 그 화두의 답으로 茶 선택
절강대 교수 시절 차관 재정립
차시집 〈차인의 향기〉 발간

스님은 "차와 불교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차를 불교문화산업의 하나로 발전시켜야 하며, 생활 다례 보급과 함께 풍류 다례 등 고급 차 문화를 개발, 전승시켜 포교의 일환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조사 스님들의 차시(茶詩)를 섭렵하고 조선시대의 다화(茶畵)를 수집하여 학회에 발표하는 등 스님은 이제 차를 그저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차를 살피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다도강좌를 열었고, 성신여대 대학원에 예절다도과를 개설하고 겸임교수로 있으면서 후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스님의 차 세계는 점점 깊이를 더했다. 그러던 중 스님은 2004년 중국의 항주 절강대 다학과에 연구교수로 가게 된다. 2006년까지 2년 간 중국의 차 문화를 접하게 된 스님은 그동안 해왔던 자신의 차세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차 공부를 시작한 지 30년 만에 자신의 '차'를 반성한다. 새로운 눈을 뜬 것이다. 그 동안 '선혜'는 '초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과거로부터 전해진 기록과 가르침에 얽매여 있었다. 중국의 차문화는 그렇지 않았다. 중국의 차는 과정에 얽매이지 않았다. 과정 자체를 우습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얽매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과정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가는 길이 달라도 한 곳으로 가면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색과 좋은 맛과 좋은 향을 지닌, '좋은 차'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문헌에 적혀 있는 기록을 재현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선혜 스님이 전남 보성군 소재 차밭에서 대중과 함께 차를 따고 있다.



선혜 스님은 … 1952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1969년 합천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2년 해인사에서 사미계, 1974년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초의 오늘의 차문화를 부흥시킨 효당 최범술 스님으로부터 다도를 배웠다. 1975년 해인사 승가대를 졸업하고 1980년까지 선원에서 참선 수행했다. 1980년에는 차회 '석정원'을 개설했고, 1984년 동국대부설 역경원 역경사 과정을 수료했다. 2008년부터 조계종 서울북부지구 포교원 법륜왕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성신여대 문화산업대학원 예절다도학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 항주 절강대 다학회계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한·중·일 예술문화교류회 이사장과 한국차학회 상임이사 한국차학회부회장, 초의 문화재 집행위원 초의상 심사위원 등을 맡고 있다.

않다는 것이다. 이론과 실재는 다르다는 것이며 얼마든지 새로운 차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스님은 오로지 선대에 정립한 다법을 얼마나 충실히 재현해 내는가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과거지향적이었다는 것이다. 눈을 뜨면 보이는 법. 중국에서 돌아온 스님은 이후로 과거의 기본에 충실하면서 스님의 차, '선혜'의 차 사원전통 '반야차'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스님은 2006년 대흥사 초의문화제 집행위원회가 시상하는 제15회 초의상 수상자로 선정된다. 초의상은 우리나라 차문화의 중흥조인 초의 스님의 차문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차문화 보급에 앞장선 사람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과거에 충실한 새로운 茶 만들기 '반야차'

"겨울 내내 / 꽁꽁 묶여 있다가 / 매화꽃 바람에 감싸이어 / 고드름 끝에 맺혀 있는 / 해맑은 눈망울로 달인 / 차 한 잔- / 꽃신(花神)에게 드리지…"

2012년 여름, 시집 한 권이 나온다. 평생 찻잔 곁에 살아온 선혜 스님의 차시집 〈차인의 향기 · 도서출판 도반〉다. 스님이 그 동안 써놓았던 1000여 편의 시 중에서 엄선한 것으로 사유와 통찰이 충만한 시들이다. 시는 한 구절 한 구절 모두 부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했다. 스님은 날마다 팔만대장경을 쓰는 마음으로 시를 쓴다고 했다.

소설가 정찬주는 스님의 시를 "북두칠성의 국자로 은하수를 길어서 밤 차를 마시고 싶어 했던 다승 진각국사의 시집 〈무의자(無衣子)〉이래, 낮에는 차 한 잔 하고 밤에는 잠 한 숨 잔다는 서산대사와 차 마시며 어찌 진리를 이룰 날이 멀다고 하는가! 하고 경책한 초의 선사의 차시 계보를 잇는 이만큼 알찬 분량의 차시집을 본 일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차시 전통을 계승하는 것만으로도 저잣거리 평단의 저울질을 떠나 〈차인의 향기〉는 사람들 손에 쥐어져 축복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믿어진다."고 평했다.

6월 5일, 인사동에서 낙원동으로 자리를 옮긴 석정원에서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며칠 전 까지 차밭에 있었다. 햇차라며 차 한 통을 내민다. 다탁 앞에 앉은 스님이 차를 우렸다. 스님이 찻잔에 차를 따랐다. 방안 가득 흐르던 차향이 모두 찻잔 속으로 떨어졌다. 한 모금의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보니 궁금했다. 왜 차는 '생각' 없이 마실 수 없는가. 초의선사부터, 그리고 그 맥을 이은 모든 이들이 그래왔듯이 차는 왜 '마음' 없이 마실 수 없는 것일까. 아니 왜 '차'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 스님께 여쭈었다. "초의 스님이 말씀하시길 차는 묘원(妙原)이며 묘원은 무착바라밀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이 없는 바라밀이죠." 그런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더욱 알 수 없었다. 스님이 다시 말했다. "색향미가 좋은 차를 얻기 위해 햇살 아래서 땀을 흘리고, 뜨거운 솥을 끌어안고 손끝에 상처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차가 지금 기자님 앞에 놓인 차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이 도(道)이지만 굳이 차가 무엇인지, 다도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 '다도(茶道)'라고 하고 싶습니다. 좋은 차를 얻기 위해 뜨거운 솥을 끌어안고 산 그 시간을 이 작은 찻잔 속에서 잊는 것이죠."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스님은 "다시 육조가 되는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육조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차'라고 하는 그동안의 시간도 육조가 되는 길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차를 얻기 위해 땀 흘렸던 것처럼 선방에 앉아 다시 땀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소임을 받는다면 다시 다각 소임을 보고 싶습니다. 예전엔 다각 소임이 구참 소임이었으나 요즘엔 신참 소임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선방에 간다면 구참 쪽일 테지만 왠지 다각 소임이 싫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 밭에 있든 선방에 있든 나는 육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발심원력이니까요."

인터뷰가 끝나자 석정원 수강생들이 들어왔다. 옛 솥이 걸린 뒤뜰 〈석정원〉에는 차인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효당 스님 문하에서 차와 인연을 맺은 스님과 재가자가 주축이 되어 결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차회인 차선회((茶禪會 · 회장 김종규) 정기 모임(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도 이곳 석정원서 열린다. **박재완 기자**



수확한 찻잎을 덖고 있는 선혜 스님.



2003년 국제차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한 선혜 스님.

전법일기

보살이 중생을 사랑할 때

자비의 김장나누기 ②

우리절에서는 지난 5년간 해마다 '자비의 김장나누기'를 해왔다. 작년엔 기초생활수급자 270가구로, 한 가구당 평균 9Kg의 김치를 플라스틱 들통에 담아 주었다. 이렇게 김장나누기를 하는 이유는 중생제도라는 보살의 본원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쉽게 말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김장 불사는 8월 하순쯤, 해남의 농부에게 배추를 주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배추 단가는 일반 업자보다 높은 액수로 정하되 출하 당시의 시세에 따라 연동하도록 했다. 계약단가와 시세의 중간 액수가 최종 가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 시세가 폭락하더라도 농민으로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 폭등할 경우 우리절에서는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배추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길게 보면 농민은 안정된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배추를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흔히 하는 말로 윈윈(win-win)이다.

김장의 시작은 배추를 다듬는 일이다. 초겨울 언 손으로 거친 겉잎을 뜯어내고 칼로 배추를 반으로 가른 후 배추꼬랑이를 잘라낸다. 이렇게 다듬은 1천 포기의 배추를 가로세로 1미터 가량의 커다란 투명비닐 100여 개에 차곡차곡 담으면서 사이사이에 소금을 뿌리고는 입구를 단단히 묶는다. 때때로 뒤집어주기를 반복하면 소금이 골고루 배여 숨이 잘 죽는다. 소금은 3년 이상 간수를 뺀 걸 쓴다. 간수가 잘 빠진 소금은 쓰거나 떫은맛이 없기 때문에 김치에서 감칠맛이 난다. 우리절 김치 맛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다.

한쪽에서는 욕조만한 스텐 용기 몇 개 분량으로 양념을 만든다. 새우와 다시마, 버섯 같은 걸 푹 고아 만든 국물에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을 넣고 강경에서 직송한 젓갈로 간을 맞추어가며 계속 저어준다. 초겨울인데도 신도들은 땀을 뻘뻘 흘린다. 우리절은 김장을 담글 때 모든 재료를 국산만 쓴다. 이웃돕기를 한다고 해서 싼 재료를 쓰지 않는다. 신도들은 자신의 가족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온갖 정성을 다 쏟는다.

김치를 버무릴 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탠다. 이날만큼은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도 앞치마를 두르고 거든다. 전날 깨끗이 헹궈서 물을 뺀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려 김치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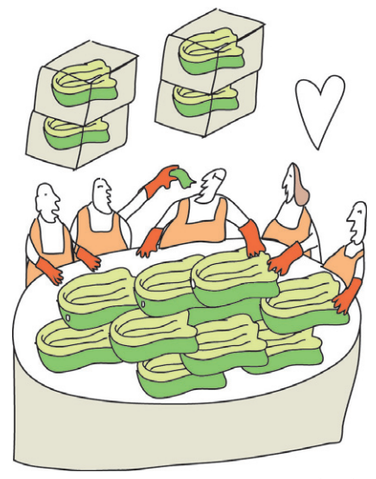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는 사랑 없어
보살행은 자신의 소중한 것 쓰는 것

김장 불사를 결산해 보았더니 현명 스님의 말씀대로 큰 적자가 나지 않았다. 2008년에 120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래 적자액수는 해마다 100만원 미만이었다.

우리절 김장 불사는 3일간 연인원 150여 명이 동원돼 치른다. 사실 그건 표면적인 것일 뿐 연신 재채기를 해대며 고추를 일일이 행주로 닦고 다듬어 말리는 기간, 빨갛게 된 눈으로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마늘을 까고 꼭지를 일일이 떼는 기간까지 더하면 훨씬 더 된다.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이 말이 고해(苦海)라는 바다에 빠진 중생을 건져주거나, 지옥의 끓는 가마에 빠진 중생을 건져주는 모습으로 다가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끝없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뜻이다.

다 아는 일이지만, 남녀가 사랑할 때 시간과 비용이 든다.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는 사랑은 짝사랑밖에 없다.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가족 관계도 그렇다. 자식을 키울 때, 노부모를 봉양할 때를 생각해 보라.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는 사랑은 없다. 보살이 중생을 사랑할 때도 그렇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돈과 시간을 쓰지 않으면서 외치는 자비는 거짓이요, 위선일 뿐이다. 배추를 내릴 때 흘리는 땀과 마늘을 깔 때 흘리는 눈물이 없다면 참된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김장은, 사랑이다.



한북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법어가 담긴
도자기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류	컵법어내용	판매가
Aset	마음+대장부	9,000원
Bset	마음+마음	9,000원
Cset	대장부+대장부	9,000원

● 컵 낱개 5,000원 (택배비 별도)
● 2세트 9,000원 (택배비 별도)
● 3세트 27,000원 택배비 무료 !!

▷ 법어내용 ◁
1. 마 음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